

'25. 2. 14(금) / 대테러종합상황실

지역별 테러 동향

미 주

- 美, 테러용의자 수감 관타나모에 10명 첫 구금
 - 2.6 美은 테러 혐의 용의자를 감금했던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 시설에 '고위험' 불법 이주민 10명을 압송했다며 同인들은 다국적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 소속으로 최근 '해외 테러 조직'(FTO)과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라 보도
- 美,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 발생해 6명 사상
 - 2.10 언론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대형 파티장에서 행사에 참석한 여러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경비원에게 제지당해 밖으로 쫓겨난 용의자가 행사장 밖에 모인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해 16세 청소년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
 - ※ 해당 파티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플라이어 파티(flyer party)'로 200~300명이 참석

아 테

- 업비트,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도 '트래블룰' 적용
 - 2.9 언론은 업비트가 오는 13일부터 기존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서 적용하던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로로 출금을 제한하는 '트래블룰'을 100만원 이하에서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
- 韓 원안위,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 계획
 - 2.11 언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년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원자력시설 안전과 연계한 방호 체계를 올해 구축하고, 신종 드론 대응을 위한 汎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
 - ※ 위원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신종 위협 등장으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가 중요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안전규제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언급

유럽

- 英 정부, 애플에 암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 요구
 - 2.8 언론은 英 내무부가 美 빅테크 기업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암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 보도
 - ※ 애플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절하였으며, 이전에 당국의 이러한 요구에 암호화 서비스 자체를 영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암호화 해제 요구에 비협조적
- 튀르키예,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규제 예고
 - 2.9 언론은 「압둘카디르 우랄로을루」 튀르키예 교통부 장관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
 - ※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급증하면서 테러, 학교 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자 세계 여러 국가(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등)들은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언

중 동

- 이스라엘, UN인권이사회 탈퇴
 - 2.6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어 UN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로 했으며 同단체는 이스라엘을 비난한 결의가 100건이 넘는데 이는 통과된 전체 결의의 20% 이상이며 이란,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 ※ 이스라엘은 UN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同단체는 하마스의 테러 활동에 UNRWA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본다 부언

아프리카

- 말리, 민간 호송대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사망
 - 2.9 외신은 말리 북부 고베 인근에서 말리 군대가 호위하는 민간 호송대를 200명 이상의 ISGS 조직원들이 공격하여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부상을 입었으며, 이번 공격에 대한 말리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보도

역사 속 테러사건

나이지리아, 대중교통 겨냥 연쇄 폭탄테러

- '15.2.25 나이지리아 요베州 버스 정거장과 카노州 버스 터미널 두 곳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
 - 1차 폭발은 11:40경 요베州에서 정류장에서 일시 정차중인 미니 버스에 한 남성이 짐칸에 가방을 싣고 막 승차하는 순간 발생, 승객 12명 전원을 포함해 총 17명이 사망하고 27명 부상
 - * 짐칸에 가방을 싣고 탑승하려던 승객이 범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 2차 폭발은 1차 공격 발생 약 4시간 후인 15:40경 북부 카노州의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승객들이 하차하는 순간 발생, 10명의 추가 사망자 초래
 - * 카노州 우딜發 버스 남성 승객 2명이 터미널에서 하차 직후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
- 테러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보코하람'이 요베州 및 카노州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유사 테러를 자행한 前例를 이유로 同 사건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한편, 나이지리아 「궂력 조너선」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롯한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보코하람 진압 의지를 표명

테러 단체

< 정글도(마체테)와 국내 소지허가 대상 도검 >

- 정글도(Machete, 마체테): 사탕수수를 베거나 밀림에서 나무 등을 잘라 길을 낼 때 사용하는 날이 넓고 무거운 긴 칼로, 간혹 흉기로도 악용
- 국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안법)에서는 무기와 흉기로 쓰일 우려가 있는 도검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도록 엄격히 규제 중
- '도검'이란 ①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창 겹용 칼)·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②칼날 길이 6cm 이상의 잭나이프 및 ③칼날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퍼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총안법 및 시행령)